



지방의원 관여 수의계약 사전신고 의무화

행안부, 수의계약 제도 개편... 계약 몰아주기 차단
동일 업체 한도 신설... 연 5회·2억 초과 계약 금지
윤리심사위, 의원 관여 부적정 판단 시 재검토 권고

지방정부의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수의계약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앞으로 같은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넘겨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위원회가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공공 횡령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공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으며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부터 순차 점검한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는 전자대금청구 시스템(에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9월까지 관련 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횡수와 금액에 상한을 둔 자체 수의계약 지침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재무감사에서 다수 행정동이 한도 초과·불합계약으로 적발됐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최종 54.08% 득표... 정청래 후보는 45.92%



김민석 후보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권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다. 김 신임 당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을 2년간 이끌며 2028년 총선을 지휘한다.

김 전 총리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에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운, 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 최종 결과는 그동안 순회경선을 통해 발표한 권리당원 표에 더해 이날 발표된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 등을 종합했다. 특히 당 대표 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선호 투표 결과를 반영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3순위 후보를 함께 기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종 득표율은 김 전 총리가 54.08%, 2위 정 후보는 45.92%로 집계됐다.

김 전 총리의 승리 배경으로는 이재명정부 출범 초반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신임 김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제주도를 포함 섬 지역의 '기본 교통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또 제주4·3을 언급하며 "제주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제주도 제공

민선 9기 지방정부 자치분권·균형 발전 협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첫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민선 9기 지방정부들이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방정부 주요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위 지사는 이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넘어선 제주가 분산 에너지특구를 기반으로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국 시·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녹록지 않다"며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현황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관련 사항, 정부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 동향 등이 보고됐다. 이상민기자

문안로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필요하다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에너지 전환과 우주산업은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존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분리해 '미래경제산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단순히 상임위원회 하나를 늘리는 행정적 확장이 아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제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회의 새로운 선택이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도의회, 시대적 변화 대응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신설 생생한 현장 목소리 담은 것

물론 1차 산업은 여전히 제주 경제의 단단한 뿌리이자 근간이다.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어려움을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경제의 또다른 핵심 축인 관광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과 미래산업이 결코 기존 산업과의 단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골목상권과 관광 현장에 이식되고, 에너지 신산업이 1차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신산업은 비로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경제산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

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책임'이었다.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방향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도정의 신성장 산업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위원회답게 책상에서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답을 찾고자 한다. 도내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청년, 기업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제주의 현실에 맞는 실용적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나아가 미래산업은 화려한 기술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기술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더 나은 일자리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희망의 정책이 된다.

의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오늘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다가를 변화를 예측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제주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경쟁력이 된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역의 몫이다. 그 당찬 준비의 앞자리에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늘 도민과 함께 서 있을 것을 약속드린다.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제주시니어클럽 「할로마켓 베이커리 카페」 참여자모집

- 모집분야
 - 베이커리 제조 및 판매
 - 음료 제조(커피 등)
 -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
- 모집인원 : 20명
- 근무장소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 101호 상가 (마음에온)
- 신청대상
 - 만 60세이상 신체건강한자
 - 바리스타 자격증 및 제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신청제외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 신청기간 : 2026. 08. 06(목) ~ 모집인원 마감 시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제주시니어클럽 (방문접수)
 -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구, 상록화관)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등
- 문의전화 : 064-745-3999 (담당 : 임상민 과장)

사회복지법인 썬파기
제주시니어클럽

백조일손 영령 및 행불 영령 제76주기(34회) 합동위령제 안내

76년 전 칠월칠석 날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백조일손 영령 및 예비검속 첫알오름사건 행불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합동 위령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유가족 및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26년 8월 19일(음력 7월7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백조일손 묘역(대정읍 상모리 586-1)
- 주 관
백조일손 유족회, 첫알오름사건 행불 유족회
-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 ※ 연락처
백조일손유족회장
고영우 HP 010-2696-5073
첫알오름사건 행불유족회장
송태희 HP 010-2693-3969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의 장

학 생 모 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에서 2026/27학년도 학사 일정 시작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각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 음

- 정규교육과정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초등 문해1	초등 문해2	한글 기초	초등 문해1	초등 문해2	초등 문해3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어초급(금)	영어회화(화)	컴퓨터교실(목)	스마트폰교실(화)
10명	10명	10명	10명
- ※ 강의 요일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대상 : 성인,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학업 중단 청소년 등
- 모집기간 : 9월 11일(금)까지(수시 입학 가능)
- 개 강 일 : 9월 14일(월)
- 수업시간 - 오전 수업: 10:00~12:00(주 3회)
- 오후 수업(주 5회)
 - 문해교육 : 19:00~21:00
 - 검정고시 : 19:00~22:00
 - 평생교육프로그램 : 18:00~19:00
- 수 업 료 : 전액 무료 및 교재 지원
- 문 의 : ☎ 762-2487(오전 10시 이후 통화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서귀동)
(서귀포 시민문화광장 부근)

since 1967
서귀포오석학교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귀포시 -

5060취업프로그램

동물매개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동물매개심리상담사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동물을 매개로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함

□ 모집인원 : 14명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실시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음

□ 교육일정

2026. 10. 1 ~ 11. 12 (7)회기
매주 목요일 / 14:00 ~ 18:00

□ 자격조건

사회성이 좋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50대 이상

□ 접수기간 : 2026. 8. 18 ~ 8. 25

□ 자격증 발급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 단, 80% 이상 교육 수료 후 소정의 자격 검증을 거친 자

□ 자격증 발급비용

교육생 본인 부담(100,000원)

□ 문의사항 : 064)742-0606

제주노영나영시니어클럽